

‘지산지소’ 영암형 에너지 대전환 속도 낸다

영암군, 전기공급업체·입주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 대불산단 생산 재생에너지 전기, 입주기업 직접 공급

대불산단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대불산단 기업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지산지소가 곧 현실이 된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부발전(주), 케이씨씨(주), ㈜세진엔지니어링과 ‘대불산단 RE100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불국가산업단지 자체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입주기업 사용 전력량 100% 재생에너지(RE100) 이행, 탄소 저감 대응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대불정수장에 올해 상반기 구축 예정인 3MW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산단 입주기업인 케이씨씨에

공급하는 약속이다. 한편은 이번 협약으로 추진될 발전설비 구축과 전력 공급 체계를 ‘온사이트 전력 직접거래(On Site PPA)’로 인정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온사이트 전력직접거래는 전력 생산지 부지 내 또는 인접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인데, 영암군의 사례는 600m가량 떨어진 소비지에 전기를 공급함에도 전국 최초로 인정을 받았다.

협약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사업 주관 기관·전기공급사업자로 전기를 공급하고, ㈜세진엔지니어링은 발전설비 구축을 맡는다.

영암군과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부발전(주), 케이씨씨(주), ㈜세진엔지니어링과 ‘대불산단 RE100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공단은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전력직접거래가 이뤄지면 대불산단 재생에너지 자급률이 현재 10%대에서 20%대 이상으로 올라설 것으로 영

암군은 전망하고 있다.

나이가 상생연계제도를 도입해 산단 입주기업과 직원들의 발전사업 투자를 보장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그동안 대불산단은 조선업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전력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전 세계 공급망의 기업 RE100 이행 요구, 탄소규제 강화로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는 필수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영암군은 이런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하나로 2024년부터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에 돌입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영암군의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을 현실화하는 첫 단추가 이번 협약이다”며 “지역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경제적 가격에 공급하고, 영암군민에게 햇빛연금을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영암형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한·프랑스 첫 공식 외교 ‘나르발호 사건’ 교과서 수록

1851년 비금도 해역 좌초 때 접촉...시, 자문위원에 감사장

1851년 전라도 나주목 관할 해역에서 이뤄진 한국과 프랑스의 첫 공식 외교적 접촉 ‘나르발호 사건’이 고등학교 심화 프랑스어 교과서에 수록됐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교과서 수록에 기여한 최내경 집필총괄자(서경대학교 교수), 김미연 검토위원(서울사대 부교수), 양수경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한국불교교사협회 대표)이 시, 전 광주불교교사 협회장을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체결된 조불 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파리 시테대학교)의 연구에 따라 이보다 앞선 1851년 ‘나르발호 사건’이 양국 간 첫 외교적 접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나르발호 사건’은 1851년 4월 2일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가 전라도 나주목(현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사건으로 당시 선원 29명이 비금도에 상륙했고, 이 소식은 중국 상하이에 주재하던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에게 전달됐다.

몽티니는 같은 해 5월 2일 비금도를 방문해 자국민 구조에 나섰다. 당시 나주 목사를 겸임하던 이정현 남평현감이 프랑스 외교 사절단을 맞이했고, 조선의 전통 관의와 프랑스의 삼페인을 함께 나누는 만찬이 마련됐다.

나주시는 2023년 ‘한국과 프랑스 외교사 재조명을 위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학술포럼’을 시작으로 나르발호 사건을 소재로 한 전시제휴관 조성 및 역사문화 제작 등을 추진해 왔다. 교과서 수록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나주시가 ‘나르발호 사건’을 고교 심화 프랑스어 교과서 수록에 기여한 김미연 검토위원(왼쪽), 최내경 집필총괄자(왼쪽 두 번째), 양수경 시정 자문위원(오른쪽)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불수호통상조약보다 35년 앞선 한국-프랑스 첫 외교사의 중심에 나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가 교육과정에 공인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입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군-순창군, 농업분야 상생 발전 도모

경마공원 공동 유치·농업 기술 공유 등 교류 협력 협약

담양군은 최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양 지역 농업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분야 5개 단체 교류 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인접한 두 지자체가 농업 기술을 공유하고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 등 공동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양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농업경영인회가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군민의 날·축제 등 행사 교류,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교류, 경마공원 공동 유치 협력, 고향사랑 상품권 기부 등으로, 양측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함께 ‘부자 농촌’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 낭독에 이어 ‘경마공원 공동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참석자들은 경마공원 유치가 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담양과 순창의 농업인들이 가족처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계를 허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이 실제로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전남과 전북을 대표하는 두 농업 도시가 손을 맞잡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교류를 이어가겠다”며 “두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 함께 잘사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백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장성통합관제센터 AI 이상음원 시스템 도입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선정...안전망 강화

장성군은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에 선정돼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는 조달청이 직접 구매한 혁신제품을 공모를 통해 선

정된 기관에 시범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장성군은 사실상 국비 6250만원 상당의 장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입되는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각종 위험 음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고성방가, 제

해·재난 구조 요청, 총동음·경적음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소리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연동된 통합관제센터 카메라가 즉시 해당 지점을 비추고 관제요원에게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다.

그동안 장성군은 영상 분석에만 인공지능을 활용해 왔다. 2022년부터 지역 내 1800여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운영하며, 영상 속 이상 징후를 AI가 감지해

화면에 표출하면 관제요원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왔다.

여기에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와 학교 주변 등 취약 지역에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면, 영상과 음원을 동시에 분석하는 일체제 감시 체계가 구축돼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김한중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입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담양군과 순창군은 최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분야 5개 단체 교류 협력 협약’을 맺었다.

영광, 문화·축제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회단 운영

고등학생 대상 의견 수렴

영광군은 지역 축제와 지역 문화 거점 공간인 영광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참여기회단을 운영한다.

청소년 참여기회단은 올해 총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청소년이 직접 축제와 문화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의견 수렴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이다.

군은 참여기회단 운영에 앞서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업 취지 설명과 함께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 차원의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청소년이 문화와 축제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1차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축제와 문화 공간에 대한 솔직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2차 모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축제 공간 구성,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예술촌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군은 청소년 참여기회단 운영을 병행, 지역축제 사전 컨설팅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축제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현장 의견과 전문가 분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축제 및 문화공간 운영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여수 ‘다, 섬에서 산다’ 섬살이 참가자 모집

내달 3일까지 16팀 선발...섬 체류·요트 체험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 섬에서 산다’ 섬살이 체험 지원사업 참가자를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여수 10개섬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섬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개인 SNS에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요트 체험 참여와 관련 콘텐츠 제작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해 해양관광 자원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총 44팀 95명이 참여해 만족도 95%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

은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화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총 16팀 64명 이내로 팀당 2~4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여수시와 지역 거주자 중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 섬박람회 지원과 섬미래정책팀(061-659-3456)으로 하면 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함평, 맥류 생육 재생기 현장 기술지도

맞춤형 재배 관리법 안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월동을 마친 맥류의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생육 재생기’를 맞아 수량 확보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생육 재생기’는 겨울철 휴면 상태에 있던 보라·밀 등이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다시 생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이삭 수와 알곡 충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온이 점차 올라 맥류 생육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기에 맞춰 맥류 재배 농가로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법을 안내하고 있다.

센터는 배수가 불량한 논과 포장은 고랑을 정비해 습해를 예방하고, 과한 습도로 인한 뿌리 활력 저하와 수량 감소를 방지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등 질소질 비료를 적정량 웃거름으로 사용하고 초기 생육을 촉진한다. 과다 사용 시 도복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포장 내 생육 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